

K-바이오, 한타바이러스 대응... 백신·치료제·진단망 구축

아이진, mRNA 예방백신 과제 선정
현대바이오, '제프티' 임상 속도
셀레믹스, 유전자 분석 패널 개발



K바이오 기업들이 포스트 팬데믹에 대응하며 K백신 주권을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한다.

/제미니이 생성 이미지

한타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포스트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백신 개발부터 치료제 긴급 공급, 유전자 변이 분석에 이르는 전방위 대응 체계 가동에 나섰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감염병에 대한 국산 방역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

20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남대서양 네덜란드 국적 크루즈선 'MV 혼다우스'호에서 한타바이러스의 일종인 안테스 바이러스에 집단으로 감염된 환자가 사망하는 등 글로벌 보건 위협이 본격화됐고 'K바이오' 기업들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국산 차세대 백신 플랫폼을 보유한 아이진은 정부와 함께 백신 주권 확보에 착

수했다.

질병관리청과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이 주관하는 '한타바이러스 mRNA 예방백신 개발' 과제에 선정됐다. 해당 과제에는 2년 간 30억원이 투입된다. 아이진을 비롯한 고려대학교 정희진 교수팀, 메디치바이오 등 연구진은 한타바이러스와 서울바이러스 모두에 교차 면역원성을 가

지는 후보물질을 도출한다는 목표다. 순수 국내 mRNA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1990년 GC녹십자가 개발한 '한타박스' 이후 30여 년간 한타바이러스 백신 분야에서 신약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이번 신약개발은 글로벌 혁신 신약 지위를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진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부터 mRNA 기반 플랫폼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왔고 대규모 mRNA 백신 생산 설비까지 갖춰 원천 기술 내재화를 이뤄냈다"며 "차세대 면역 기술을 지속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바이오는 자체 파이프라인 '제프티' 임상에 속도를 낸다. 제프티는 범용 항바이러스제로, 주성분 '니클로사마이드'는 에볼라바이러스와 한타바이러스 모두에 유의미한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약물 안전성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했다. 현재 베트남에서 진행되고 있는 뎅기열 임상 2상에서 저용량 투약군부터 고용량 투약군까지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현대바이오는 임상용 의약품을 방역 현장에 긴급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 제조 규정에 따라 생산한 임상약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나 감염 발

생 국가의 지원 요청 시 추가 생산 없이 즉각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현대바이오 측은 "복합적인 감염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대안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러스 감염을 진단하는 분야에서는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전문기업 셀레믹스가 기술력을 강화한다. 셀레믹스는 고유의 '타겟 캡처' 기술로 한타바이러스 분석 패널을 설계했다. 유전 정보를 폭넓게 파악해 알려지지 않은 변이 영역까지 감지할 수 있다. 특히 한타바이러스와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은 발생 지역이나 매개 동물에 따라 역학적 특성이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밀 유전자 감시가 요구된다.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는 "바이러스는 변이와 유입 경로를 계속 살펴봐야 하는 분야"라며 "자체 기술과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안정적인 대응망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삼바에피스, 일본 자가면역질환 시장 공략

'SB17', 후생노동성 승인 거쳐 출시
지난해 6월부터 니프로와 협업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SB17' 일본 제품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일본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SB17(성분명: 우스테키누맵)'을 본격 발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9일 일본 건강보험 약가 기준에 등재됨에 따라 일본 마케팅 파트너사 니프로를 통해 현지 의약품 시장에서 출시되게 됐다.

SB17은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등에 쓰인다. 면역반응 관련 신호 전달물질인

인터루킨(IL)-12, 23의 활성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췄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12월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SB17' 판매 허가를 승인 받았다. 앞서 같은 해 6월부터 니프로와 전략적 협업을 맺고 SB17을 포함한 다수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일본 내 상업화를 추진해 왔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커머셜사업본부 정진한 상무는 "일본 자가면역질환 환자에게 고품질 바이오시밀러 치료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앞으로도 다양한 치료 분야의 미충족 수요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설화수X르쥬'

/아모레퍼시픽

전통·현대의 공존... 설화수 x 르쥬 전시 개최

내달 14일까지 북촌 설화수의 집

아모레퍼시픽은 오는 6월 14일까지 서울 종로에 위치한 '북촌 설화수의 집'에서 패션 브랜드 '르쥬'와 협업한 이색 전시를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세대를 잇는 여성의 방'이라는 주제로 뷰티와 패션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관람객은 브랜드 전통에 대한 해석, 여성 삶의 서사 등에 대해 꾸며진 여러 방을 이동하게 된다. 설화수가 지닌 고유의 미적 자산과 르쥬의 디자인 감각이 독창적인 분위

기와 시각적 몰입감을 선사한다.

전시가 열리는 '북촌 설화수의 집' 역시 한옥과 양옥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한국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미감이 이변 전시의 메시지를 더욱 입체적으로 전달한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이번 협업은 뷰티와 패션의 언어를 하나의 공간 경험으로 통합해 브랜드의 미학을 새롭게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와 협업해 뷰티 경계를 확장하고 설화수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동아제약 '멜라토닌크림' 누적 300만개 팔렸다

동아제약은 멜라토닌크림(사진)이 출시 5년 만에 누적 판매량 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

멜라토닌크림은 동아제약이 2021년 선보인 색소침착 치료제다. 히드로퀴논 성분을 2% 함유한다. 이 성분은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는 효소인 타이로시나아제를 억제해 멜라닌 과다 생성을 방지한다.

또 멜라닌을 생성하는 멜라닌 세포 내 멜라닌소체의 구조에 작용해 과다 침착된 색소를 탈색하는 작용을 한다.

동아제약은 멜라토닌크림을 튜브 형태로 발매하고 있고 최근에는 50g 대용량 제품을 추가했다. 히드로퀴논은 4% 성분의 '멜라노스 크림'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짙은 기미와 검

버섯 등 색소침착 정도에 따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색소침착 치료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지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건강 챙기는 가정의달... 정관장 전기식 인기

화애락·RXGIN 매출 나란히 증가

가정의 달과 부부의 날(5월 21일)을 앞두고 부모님과 배우자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늘고 있다. '효도 선물' 성격이 강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세대별 건강 고민에 맞춘 실용적 선택이 두드러지며 맞춤형 건강 제품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는 분위기다.

정관장에 따르면 올해 가정의 달 프로모션 기간(4월 23일~5월 16일) 동안 갱년기 여성 건강 브랜드 '화애락' 매출은 전년 대비 1.3배, 남성 활력 전문 브랜드 'RXGIN' 매출은 1.4배 증가했다. 특히 20대와 50대 이상 고객의 매출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갱년기 여성 건강 브랜드 '화애락'은 부모님 선물 수요와 함께 중장년층의 자기 관리 수요를 동시에 흡수하고 있다. 2003년 출시 이후 20년 넘게 여성 건강 연구를 이어온 브랜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받은 갱년기 여성 건강,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혈행 개선, 기억력 개선 등의 기능성을 기반으로 제품군을 확장해왔다.

대표 제품인 '화애락 진 토탈솔루션'은 홍삼에 여성건강 특효 조성물, 녹용 추출액, 사프란 추출물, 저분자 폴리켄 펩타이드 등을 더해 갱년기 여성의 복합적인 건강 고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칼



홍천웅

/정관장

로리 부담을 낮춘 점도 특징이다.

남성 활력 전문 브랜드 'RXGIN' 역시 부모님과 배우자를 위한 건강 선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20대와 50대 고객 매출이 함께 늘었다. 최근 리뉴얼된 'RXGIN 홍천웅'은 홍삼농축액에 스트레스성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경천 추출물(SHR-5)을 더하고, 녹용과 구기자·사상자·복분자·토사자·오미자 등을 담은 식물 혼합농축액을 배합해 남성 맞춤형 복합 설계를 강화했다.

업계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단순한 선물을 넘어 가족 구성원의 생애주기에 맞춘 '건강 관리형 소비'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20대는 부모님 건강을 고려한 실용적인 선물을 찾고, 50대 이상 액티브 시니어는 노년 대비보다는 현재의 활력과 컨디션 관리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애경산업, 찌든 때 잡는 트리오 신제품 출시

레몬·오렌지향 주방세제 선행

애경산업은 주방세제 브랜드 트리오에서 '베이킹소다를 담은 주방세제'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애경산업만의 세정 기술력을 바탕으로 베이킹소다, 구연산 등을 처방해 식기 찌든 때와 기름기를 제거해주는 제품이다.

과일과 채소를 세척하는 데도 활용 가능하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를

완료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친환경 마크를 획득해 제품력을 입증했다.

이와 함께 이번 신제품은 레몬향, 오렌지향 등 총 2종류로 구성됐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우수한 세정력과 설거지 후 상쾌함까지 구현했다"며 "앞으로도 주방 위생과 환경을 고려한 제품을 지속 개발해 소비자 일상을 편리하게 하는 대한민국 대표 주방 브랜드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